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4

충현의 만나

2005

가정예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누가복음 · 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4

충현의 만나

2005

가정예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누가복음 · 시편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 ②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③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 ④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 ⑤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 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참 변화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셨고
오직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게 하신 주님
성령 안에서
늘 말씀으로 주장하시며
진리 안에 거하는 은총을 내리시는 주님
가시채를 사용해서라도
주의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이여
우리에게는 주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늘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이 베푸신
한량없는 은총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소서.

2005년 4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특정 인물별 삶



그리고 수화 언어로 음역한
도널드 데이비슨 도울비 음역한
판타지 토오송수 음역한 조오
사이어의 삶

비. 18살주 토오송수 글
비. 18살주 글이치 사이어의 삶
비. 18살주 글이치 사이어의 삶
비. 18살주 글이치 사이어의 삶
비. 18살주 글이치 사이어의 삶
비. 18살주 글이치 사이어의 삶
비. 18살주 글이치 사이어의 삶

비. 18살주 글이치 사이어의 삶
비. 18살주 글이치 사이어의 삶
비. 18살주 글이치 사이어의 삶
비. 18살주 글이치 사이어의 삶
비. 18살주 글이치 사이어의 삶
비. 18살주 글이치 사이어의 삶
비. 18살주 글이치 사이어의 삶

특정 인물별 삶 사이어의 삶 비. 18살주 글이치 사이어의 삶



매일성경묵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2025 12/15(화) 영남 불광도 도량묵상회

영남 불광도 도량묵상회 주지 대담자 김대현 목사 (주) 영남 불광도 도량묵상회

주지 대담자 김대현 목사의 묵상문

하나님께서서는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여...”(28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31절). 예수란 말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내가 임신하여 낳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시골 처녀인 마리아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정말 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엡1:4-5).

신령한 복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엡 25).

기도 제목 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예언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창3:15).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미5:2)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언만 있고 성취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신18:22).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는 이 땅에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1:11). 초대 교회 성도들은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습니다. 점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갑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 땅에 처음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기도 제목 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위임 목 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4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이 있기 750여년 전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그의 길을 예비하라…”(사40:3)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실 여호와와 그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750여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세례 요한이 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독사의 자식들아...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눅3:7-8)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복음의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눅 3:4).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성령의 충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규례를 따라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18-19절)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사”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 다음 다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21).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서는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24절). 주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써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형벌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돈과 명예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기준을 죄 사함에 두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32:1-2). 죄 사함 받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 받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함 받는다는 것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2).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 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17절). 누가는 분명히 제자와 사방으로부터 온 백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26-27).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마 20:22).

기도 제목 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26절)고 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더 나은 선지자였을까요?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27절).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멀리서 메시아를 증거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그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2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욱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회당장 아이로의 딸은 12살 먹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회당장 아이로는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후에 통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52절).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53절). 사람들이 이미 죽은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비웃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는 비웃음입니다.

이 비웃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비웃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주어지는 몸만 알았기에 그 몸이 잠들자 통곡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요11:26).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적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막 6:6).

-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당하실 십자가의 수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23절). 이 자기 부인은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행주의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근거는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생명이라고 해도 이것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의 타락하고 부패한 자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저야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1:24). 이 십자가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환난도, 고통도 자기가 지고 가야할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 12: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을 좇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십니다.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전도대를 영접하지 않는 동네가 있을 때에는 거리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10-11절). 70명의 전도대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이 동네가 이교도 동네임을 증거하는 유대인의 표시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영적으로 이방인이 된 유대민족을 향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또 이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시급한 일인지를 알게 해 줍니다.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그들이 핑계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많은 무리들과 국가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이 세대가 마지막 때임을 믿고 나가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국가들에 천국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천국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나...” (벧후 3:10).

기도 제목 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먼 옛날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먼 길의 수고로운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남방의 여왕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비운 틈을 타서 반역이 일어나서 왕좌를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여행으로 육신의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남방 여왕은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구경거리로 여겼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솔로몬 왕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여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31절). 남방 여왕은 솔로몬왕의 지혜에 감탄하며 여러 가지 귀한 예물을 솔로몬 왕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주님의 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의 왕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사모하여 감사치 않은 세대는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에 참여할 때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자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② 찬양 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단순한 마음 속에서만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마음으로 확신하여 입술로 고백해야만 온전한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막연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또 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8-9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세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죄의 종으로 억눌린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롬1: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요일4:2).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10).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빌 2:1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에서 독립을 쟁취하려다가 반역 죄로 빌라도의 군대에 의해 성전에서 죽음을 당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음을 당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이 그 자신이 그 속에 끼어 있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4-5절).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5:3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죽은 행실(히6:1), 우상 숭배(살전1:9), 각양 더러운 악(고후12:21), 자기의 허물(시32:5)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벧후3:9).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행2:38). 회개의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성만을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죄악성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마3: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원들이 ‘단기선교’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어떤 집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노한 집주인이 종들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21절). 결국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초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베푸는 은혜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제적으로 부하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누리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같은 사람들보다는 멸시받는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은 창기나 세리,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따돌림당하던 병자들, 절뚝발이, 소경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24절). 이 잔치는 천국에서 있을 영원한 잔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여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딤후3:7).

기도 제목 ① 천국 잔치에 초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1절).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잃어버린 양(4-7절), 잃어버린 드라크마(8-10절),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11-32절)입니다. 이 비유들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비난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세리나 창기들을 죄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일이 성공했을 때의 기쁨이 이 비유들 가운데에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7절, 10절, 22-24절, 32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을 먼저 찾아주셨으며(창 3:9) 끊임없이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해 시기와 불만을 일삼는 장자의 모습은 영적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28-30절). 우리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잃은 자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 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기를 에타게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 11: 28)

기도 제목 ① 주위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재물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 대한 한 차례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물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유혹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간파하신 예수님은 미래의 삶과 영적 삶을 위해서 재물을 선용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1-13절).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장차 천국에서의 운명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예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는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기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으며(29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30절).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다가 결국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재물에 대한 욕망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를 도우며, 과부와 고아와 비천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신 10:18:14:29).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 실 곳을 마련해 주었던 수넴 여인과(왕하 4:8-10)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이(행 16:11-15)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귀한 일에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 나니…”(롬 16:18)

기도 제목 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누가는 본 장에 다양한 예수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제자들의 생활 원리, 믿음의 위력, 재림의 시기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교훈들이 나타납니다(1-10절, 20-37절). 이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다가오는 수난에 직면하여 제자들에게 그들의 영적 자만을 경계하고 겸허하게 복음 사역에 매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본장 중간에 삽입된 문둥병자 치유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매우 독특한 사건으로서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치의 병까지 치유하시는 주님의 메시아적 권능과 치료받은 자가 보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홉 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과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예수님 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습니다(14절). 그런데 그중에 오직 한 사람만 자신이 치료받은 것을 보고 돌아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15절)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16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치료받은 사람은 열명인데 이방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17절).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19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베풀어주신 구원에 먼저 반응을 보여야 할 자들은 이스라엘인들이데, 정작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이방인이 돌아와 감사를 한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은 감사의 암술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입을 벌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백성들이 저를 찬송하라”(롬 15:1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1절의 말씀대로 기도의 성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1절). 누가 복음에는 이외에도 11장에 딱 세 덩이를 구하려고 강청하는 기도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적인 주제는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살전 5:17).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육체의 호흡이 멈추면 그 몸은 죽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 가 멈추면 그 영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기도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식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울면서 때를 쓴다고 해서 구하는 것을 전부다 주는 부모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이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좀 더 넓은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기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기도 제목 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쉬지 말고 드리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의 구원 사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의 핵심인 구원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전까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역을 해오셨습니다(5:32).

삭개오는 세리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2절). 이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둘러선 무리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불평을 했습니다(7절). 이처럼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이러한 단순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겠으니 속히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무신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는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8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회개해야 하며,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모르는 주위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②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역에 매진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해 자기들의 기반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주님께 도전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했습니다(1-8절). 또한 세금 문제를 들먹이고(19-26절), 부활에 관한 질문(27-40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악한 포도원 소작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10-12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마저 죽일 것입니다(15절).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심판주로서 자신을 반대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16절).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불신앙을 즉시 회개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피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계 1:7)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십자가 수난을 사흘 남겨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과 궁극적인 종말의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웅장함을 가리키며 자랑했습니다(5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6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언제 있을 것이며 그 징조가 무엇인냐고 물었습니다(7절).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의 답을 하시기 전에 8-9절에서 제자들이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때가 가까왔다고 할 때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8절).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는 종말에 관한 교훈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종말의 시기와 현상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임박할수록 환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를 확신하고(18절), 매사에 경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34-36절) 이 땅의 쾌락에 열중하여 미래의 심판을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종말만을 열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세의 삶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것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깨어 경성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기도 제목 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② 단기선 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까지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예수님의 수난, 부활 및 승천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22장은 예수님이 받으신 수난의 초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22장은 일정한 주제의 통일성이 없이 예수님께서서 종교지도자들의 음모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에 잡혀가는 재판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거행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제자들에게 베푼 성례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4-23절). 특별히 이 두 사건에는 자신을 속죄양으로 드러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구속 열정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요한은 이튿날 염두에 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히 9:12)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갯세마네 기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고자 하신 주님의 고통이 철저히 담겨 있습니다(39-46절). 누가는 특히 본 장에서 고난 앞에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과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영원히 죄로 인해 멸망 받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쓰시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눅 24:7)

기도 제목 ①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운 죽음이라는 사실을 본 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에서 언급된 죄목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습니다(1-5절).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러나 헤롯 역시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그분의 죄 없으심에 대하여는 무관심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능욕한 다음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6-12).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기 위해 입힌 옷은 오히려 고난 후에 받게 될 부활의 영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다시 섭니다(13-25).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반면에 중벌을 받아야 마땅한 바라바는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적인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결과 나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주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고후5:21).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26-43). 가시던 중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주님은 극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시몬을 통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9:23). 이제 강도까지 무죄함을 호소하였던(41절)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

기도 제목 ①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으나 무덤이 빈 사실을 발견하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나타나 주님께서 하신 고난과 부활의 말씀을 상기시킴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1-8). 그러나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오히려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9-12).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17-35).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여인들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에 나타난 고난과 부활에 관한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온 세상에 복음 전파의 사역을 명령하셨습니다(36-49). 비로소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52-53). 이것은 곧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의 말씀처럼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찬양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후에 일어날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눅 24:53)

기도 제목 ①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② 송요한 선교사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아담이 범죄한 이후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려는 주님의 자녀들을 박해와 조롱, 학대 등으로 꺾어버렸지만,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강건하고 능률히게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2절)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은 온실속의 화초가 아니라 모진 폭풍과 박해 그리고 죽음까지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사53:3).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기나긴 순종의 과정에서 때론 지치고 낙심하며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4절).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범한 인내의 소유자여서가 아니라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십자가를 참으사...”(히 12:1-2)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평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늘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겠습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리”(히 12:3)

기도 제목 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인내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현재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혹시 탐욕으로 시작된 지극히 이기적인 절규는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주께서 자신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심령 깊은 데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바라보며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8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영혼이 주의 구속하심을 바라보며 간절히 주를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망대로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24) 그러기에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박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편 기자처럼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전심으로 절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의 것임이요”(마5:3) 가난이란 갈급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갈급함이 없다면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아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4)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감사하며 동시에 애통해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기도 제목 ①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죄악에 대한 애통함을 갖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죄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신분을 포기하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은 이제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교만한 자라는 질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있고 지혜로운 자라고 부추기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피조물인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알 수 없는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주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그 심령을 주님 품에 맡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1절)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을 받는 피조물의 관계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2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심령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온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요14:27). 자신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결코 자신의 삶과 다른 이의 삶을 지휘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정이나 이웃, 그리고 일터에서도 자신을 중심인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젖만을 얻기 위해 엄마를 찾는 갓난 아기가 아니라 엄마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젖 떼 아이같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의 품에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시 131: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시편 전반부는 언약궐에 얽힌 역사를 회상하며 사실에 기초한 순종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5-8절). 실제로 언약궐이 기랴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즐거이 노래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삼하6:14-15). 시편 기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과로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며 자신들도 주님께 순종할 때에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10-12절). 더 나아가 시편의 후반부는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13-18절).

결국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타난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죄인들이 행하였던 불순종의 죄악들이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주님을 향한 참된 순종들을 계속해서 본받음으로서 현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과거에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나타나고 있고 다시금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께서 오실 그날에 대해 믿는 자로써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펼쳐질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하더라”(계 4:10-11)

“...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계 4:1)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② 전 교 회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과묵한 사람도, 진저리가 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1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열두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행2:1)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히10:25) 하는 것은 사단의 노예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교회에 ‘다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이”(2절)의 말씀처럼 지금 내 곁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름부으신 제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기름부어진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도록 세움받은 존재로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주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낙담될 때 주님께서서는 내 곁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위로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사이에 보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긍휼 그리고 기쁨은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행 2:46)

기도 제목 ① 주님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소서.
②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강기엽 단기선교사, 이복희 평신도 단기선교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애 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로 시작된 발걸음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발걸음으로 옮겨집니다. "...여호와 의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1절)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심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 안으실 때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이다"(3절) 참된 복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구속함을 받은 것만으로도 주님을 송축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간절할 때 천국으로 가는 모든 여정은 기쁨이요 찬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로 가는 모든 발걸음이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즐거워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표정과 행동과 말에서 전혀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다면 그리고, 항상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증인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송축하는 하는 것이 가장 당연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시 103:2)

기도 제목 ① 환경에 관계없이 오직 주님 한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공과

코스도 수배

4월 구역 공과 포인트

참 변화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변화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참 변화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핵심 포인트
4/1	행 9:1-6	바울의 변화	시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4/8	행 8:26	일어나 가라	행함의 순종으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4/15	행 19:8-20	종려주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4/22	행 26:12-14	황소처럼 고집 센 바울을	십자가 은혜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4/29	막 14:22-24	주의만찬	주의 만찬을 참여하기 위해선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1.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 바울의 변화

| 포인트 |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 찬 송 |

208장(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03장(나 행한 것으로)

| 본문 행 9:1-6 |

¹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²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³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⁴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⁵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⁶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호변 은울비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1주 務

3-118 務 務務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울'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스스로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또 하루 온종일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 설교 본문 읽고 나누기

1. 변화되기 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의 발 앞에 두니라 행 7:58

잘못된 종교적 신념과 지식이 가져오는 엄청난 일은 어떠한 모습
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가진 죄는 강도(強度)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변화되기 전의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진행시켜 보십시오.

2. 변화의 과정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행 9:17

변화되기 전 바울이 유대교의 전통을 열성적으로 따르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행 9:17

바울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 기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바울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3. 변화의 이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행 9:20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3절을 기록해보면서 그 대답을 찾아보십시오.

4. 변화의 능력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 생명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삶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 주

1. 주예, 늘 새롭게 하여 주소서

2. 주예, 늘 당신이 필요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소세

2. 일어나 가라

행할 때에 이방인의 그나습았아사도 그 고대하본 15과 11이함장상 11호도
 1자이를 토으며지 11 은글안고식5도 토회이 11도승 11어릿 110를 11새어부 11
 11 올날 11하11중 올음본 11한자이 11글도 11새어11원11도 11나습았로 11
 11나습았을 11주

| 포인트 |

행함의 순종으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 찬 송 |

273장(저 북방 얼음산과) 254장(주 은총 입은 종들이)

| 본문 행 8:26 |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박해도 더 거세어졌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312 포

‘일어나 가라’ 하셨을 때 베푸시는 주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선교지에서 혹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실들은 무엇입니까?

· 설교 본문 읽고 나누기

1. 성령과 천사의 일하심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행 7:35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였던 그는 사건들을 논리와 근거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천사들이 나타나 관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 7:30,35 참고).

스테반은 그의 설교를 통하여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어떤 사람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행 8:29

누구를 통해 빌립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까?

행 8:26



도움 말씀

행 8:29

12:11 다음 문장 보충

행 8:39

심하심을 의식한 바울

행 12:11 바울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 바울을
행 12:11 바울은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 바울을

2. 아브라함과 빌립의 순종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 12:1

아브라함과 빌립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빌립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과
빌립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해보십시오.

—— 행함에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이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행함에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이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3.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3.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분명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떠났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지만 빌립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 세계 곳곳으로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되 망설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자신의 사고방식 따위는 접어둔 채 떠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롬 10:12

위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정약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성령을 좇아 행하라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보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다 깊은 곳으로 이끄시든, 해외로 나가라고 명하시든, 하늘 끝까지 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던져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을 어디론가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일어나서 간다면, 여러분 또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석 같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 약속하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 간절한 기도 |

1.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소서
2. 늘 깨어 있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3. 말씀이 살아있는 에베소 교회

| 포인트 |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 찬 송 |

239장(사랑의 하늘 아버지) 236장(주 예수 크신 사랑)

| 본문 행 19:8-20 |

⁸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⁹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¹⁰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¹¹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¹²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¹³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¹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¹⁵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¹⁶ 악귀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¹⁷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¹⁸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¹⁹ 또 미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²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까?

1. 참 진리의 말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보다는 도덕을 강조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법이나 가르치라고 요구합니다.

왜 복음의 말씀, 즉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까?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한 것을 사랑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 보시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2. 말씀을 전하는 교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행 19:8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만을 설교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되는 말씀을 기록해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마 24:14

3. 에베소 교회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 4:12

에베소 교회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까?

참 진리인 복음을 믿고 나서 이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4.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나 렘 23:29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
하느니라 살전 2:13

5. 오직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초대 교인들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
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路

오늘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참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십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누가는 책 한 권을 초대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고, 뿌리내리고, 자라고, 흥왕해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려면 여러분이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가 정:

교 회:

| 간절한 기도 |

1. 진정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 하소서
2.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에 따라 온전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4. 황소처럼 고집 센 바울을

| 포인트 |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 찬 송 |

330장(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338장(천부여 의지 없어서)

| 본문 행 26:12-14 |

¹²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
이다 ¹³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¹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
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시채로 다루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 코웃음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상하게 왜곡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 설교자가 부르짖으면 아예 귀를 틀어막아 버립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죄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 채 회개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시채를 뒷발로 차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설교 읽고 나누기

1. 은총의 빛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
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행 26:14

은총의 빛을 받기 전의 바울의 행적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
리도 여전히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핍박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
도를 무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행 9:7 도를 행하여 이르시니 이르시도 .8

위 말씀은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2. 가시채를 통해서

가시채의 원래 뜻과 그 물건을 사용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의미:

말씀의 이유:

바울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 신앙의 고백은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참고 롬 3:10절 이하)

3.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갈 1:23

나는 사도 중에 자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
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고전 15:9

위 말씀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선포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선포한 진리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참조 행 26:23)

4. 자기를 부인하라

디모데전서 1:12-14절을 기록하십시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아직도 자기를 주장하려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답전 1:12-14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려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 간절한 기도 |

1. 주님! 순간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 은총의 빛을 내리어 주소서.
2. 매일 주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5. 주의만찬

| 포인트 |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선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 찬송 |

282장(유월절 때가 이르매) 284장(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막 14:22-24) |

²²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²³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²⁴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의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새롭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 가운데 행하던 만찬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이 있는 만찬이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의식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14장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날부터 한주일 동안을 말하며,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축제일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양을 잡고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양을 잡아먹으며 절기를 지켰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기념일이었습니다.

· 설교 읽고 나누기

1. 유월절의 어린양 예수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막 14:1,2

유월절을 전후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의 한 주가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행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저질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닥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을까요?

미리 준비되어졌던 '유월절 어린양' 희생제물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2.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막 14:3

주의 만찬을 제정하기 하루 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향유를 허비하였다고 그녀를 비난하기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녀를 두둔하시며 그녀의 순전한 헌신의 마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막 14:9)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에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주변의 상황들을 벗어나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 회개치 않는 마음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막 14:18

가롯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를 고심하였습니다(막 14:10,11). 다음날 저녁, 머리 속으로는 사악한 계획을 세우면서 유다는 예수님의 만찬 자리에 앉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존경할 만하지만 그 마음은 추하기 그지없는 것이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죄를 품고 회개 없는 그의 마음은 만찬에 참석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회개 없이 주의 만찬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막 14:21

4. 정결한 마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
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전 5:7,8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녁식사를 하시던 밤에는 두 종류의 만찬
이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하는 만찬으로 먼저 자신
을 살피고 만찬을 위한 특별한 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막 14:15)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두 번째 만찬은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
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반오라 이것이 내 이니라 하시고 (22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의 피
니라 (24절)**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앞서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함으로 스스로 준비해
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路

무교절 첫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두에게 '새언약'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예수님 자신이 희생양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교절 떡은 이제 그의 이 되었고, 포도주는 그의 를 가리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게 되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나 : (막 14:24)

예수님의 부활과 나 : (요 6:57)

예수님의 재림과 나 : (고전 11:26)

| 간절한 기도 |

1.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소서
2. 주의 만찬에 순전한 헌신과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도우소서

남성도구역예배공과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황소처럼 고집 센 바울을(행 26:12-14)

은총의 빛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인 무리들을 선동하는 바람에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그립 바왕과 여러 유명 인사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변호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하는 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엄격한 유대 교의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배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찾아내 진멸하려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위임장까지 받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때도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 다. 갑자기 한 밝은 빛이 바울을 멈춰 세웠습니 다. 바울은 그 때의 일을 회상합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13,14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자 바울과 그의 일행은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바울만 해를 입었습니다. 그의 눈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행 22:9) 예수님은 바울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행 9:7).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믿음, 자긍심, 자의식을 송두리째 없애

버리셨습니다. 바울은 힘없이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메섹까지 가는 것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시채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 속담을 빌어 바울의 쓸데없는 고집을 일깨우셨다는 것입니다. 가시채는 뾰족한 가시가 박힌 기다란 나무 막대기로, 밭을 가는 동안 소를 재촉할 때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소용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해를 입는 것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은 우매하고 고집만 센 황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자긍심은 바울의 눈과 귀를 막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견어치는 것이 옳은 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자신은 무기력한 눈먼 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바울을 징계하셨을 뿐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고집불통 황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인도와 가르침만 받는다면, 이 우매한 짐승은 앞으로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순종한다면, 그는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끝까지 고집부리다 그대로 죽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항복하고 생명을 얻을 것인가, 바울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가시채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 부드럽게 다독거릴 때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보낸 설교자나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믿었고, 모세의 율법은 그를 불의한 자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진실을 보여주셨고, 정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여러 분에게서 친구나 가족을 앓아 가십니다. 때때로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질

병으로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십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시채로 다루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 코웃음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상하게 왜곡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 설교자가 부르짖으면 아예 귀를 틀어막아 버립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죄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 채 회개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시채를 뒷발로 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가 주님께 향하게 된다면,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불행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있고, 가슴은 마치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 또한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후회하고, 거둬주지 못하며 괴로워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에 죄수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참회하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고전 15:9). 바울은 매일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에 대해 들려오는 나쁜 평판 때문에 울어야 했습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갈 1:23).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박해로 인해 흩어지고 파괴되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이들은 정말 바울로서는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 겪게 될 모든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훈련은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이 그 시련들을 정면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아그립바왕에게 천상에서 내려온 빛이 자신의 신앙을 유대교

에서 기독교로 어떻게 송두리째 바뀌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그 신앙을 전하는 자요 증인으로 변화시켰는지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 말했습니다.(행 26:18참고) 그는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 예언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언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행 26:23) 바울도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 때의 그는 완고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매를 더욱 자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천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더이상 변명하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 아니면 죽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꾀방자요 꺾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딤후 1:12-14) 바울은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그는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미련하고 고집 센 황소였던 그가 겸손하고 충성스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같이
주 기도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5년 4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만나 : 이창수(1-7일), 윤수일(8-14일), 황진섭(15-22일), 정성명(23-30일)

구역예배공과 : 위건량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